논어 3편 팔일 24장 · 원문·풀이

儀封人請見，曰：「君子之至於斯也，吾未嘗不得見也。」從者見之。出曰：「二三子，何患於喪乎？天下之無道也久矣，天將以夫子爲木鐸。」

독음 · 의봉인청현 왈 군자지지어사야 오미상부득견야 종자현지 출왈 이삼자 하환어상호 천하지무도야구의 천장이부자위목탁

쉬운 풀이(요약) · 의 땅의 관리가 공자를 만나고는 제자들에게 실직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늘이 공자를 세상을 깨우는 목탁으로 삼으리라는 뜻이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儀 꼴 의 의 / 封 봉할 봉 봉 / 人 사람 인 / 請 청할 청 청

見 볼 견 견 / 曰 가로 왈 / 君 임금 군 / 子 아들 자

之 갈 지 / 至 이를 지 지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斯 이 사 사

也 어조사 야 / 吾 자기 오 오 / 未 아닐 미 미 / 嘗 맛볼 상 상

不 아닐 불 / 得 얻을 득 득 / 從 좇을 종 종 / 者 놈 자

出 날 출 출 / 二 두 이 이 / 三 석 삼 삼 / 何 어찌 하 하

患 근심 환 환 / 喪 죽을 상 상 / 乎 어조사 호 / 天 하늘 천 천

下 아래 하 하 / 無 없을 무 무 / 道 길 도 도 / 久 오랠 구 구

矣 어조사 의 / 將 장차 장 장 / 以 써 이 이 / 夫 지아비 부 부

爲 할 위 / 木 나무 목 목 / 鐸 요령 탁 탁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